

# “내년엔 南北이 함께 달리자!”

## 김문수 경기도지사 평화축전마라톤대회 참가

통일을 염원하는 2007 평화축전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시민 8,000여명은 10일 오전 9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을 출발해 민간인 통제구역까지 내달리며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개최한 평화 마라톤은 민통선 안쪽 구간까지 오가는 코스로 마련돼 분단현실을 되새기고,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민족화합의 한마당이 됐다.

마라톤은 21km 하프와 10km 2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됐고, 쌀쌀한 날씨에도 완주한 시민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내년부터는 마라톤 코스가 북녘땅까지 이어지길 염원했다. 또한 출발 전 평화의종 타종식과 인기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이벤트가 이어졌다.

김지사는 이재창 국회의원, 서효원 경기도제2부지사, 마라토너 이봉주 등과 함께 평화의 종을 울리며, 시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10km코스를 완주한 뒤 개성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추진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김지사는 “내년에는 북한 개성까지 이어지는 남북평화마라톤 대회를 열 것을 희망한다”며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오늘 대회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시민 8,000여명은 10일 오전 9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을 출발해 민간인통제구역까지 내달리며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다.

마라톤 구간은 21km 하프코스인 경우 임진각 주차장-마정삼거리-통일대교-군내삼거리(반환)-통일대교-자유로-당동IC-문산대교 남단(반환)-자유로-통일대교-임진각. 그리고 10km코스는 임진각-통일대교-군내삼거리(반환)-임진각으로

마련됐다. 이 가운데 통일대교-군내삼거리-통일대교 2.8km 구간은 민간인 출입이 군부대에 의해 통제되는 민통선 구간이다. 이밖에 가족 동료단위의 참가자들은 '무언의 평화의침-전쟁

유물사진전'과 '신나는 당나귀 마차여행', 'DMZ 자연사랑-곤충·물고기 종이접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굴렁쇠 등 전통놀이 체험', 길거리 미술 등 이벤트를 즐기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깨끗한 의정부시 가꾸

## 천보환경지킴이 청소년 단원 봉사활동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담배꽂초, 휴지 등 시민들이 무심코 버린 각종 쓰레기를 줍고, 바닥에 붙은 껌을 제거하고, 하천 주변 잡초 뽑는 일 등에 의정부시 금오동 천보환경지킴이 청소년단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금오동 천보환경지킴이 발대식을 가진 이후 '우리 동네 환경은 우리가 지켜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매월 둘째 및 넷째 토요일에 관내 부용천 주변 및 철길 주변, 기타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중점적으로 청결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11월10일에도 천보 환경지킴이 단원들은 부용천에 집결해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하천 및 철길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다소 쌀쌀한 날씨와 바람으로 추웠지만 단원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쓰레기봉투를 채우는 열기로 추운 날도 모르고 쓰레기 줍기와 잡초를 제거하는데 앞장섰다.

김홍식 단장은 환경정화 봉사

활동이 5개월째 실시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각자의 손에 의해 환경이 얼마나 더러워질 수 있고, 또한 깨끗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체험의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며, 특히 어떤 학생은 버릇이 되어 광장시에도 길을 걸어가며 무심코 휴지를 줍는다고 말했다.

사실한 자긍심은 환경지킴이 활동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깨끗한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심어주어 기쁘며,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단원들이 모두 참석해 하천 정화활동에 참석해 주어 감사하다고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11월10일 천보 환경지킴이 단원들은 부용천에 집결해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하천 및 철길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경기도 중앙아시아 진출 첫걸음

##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경기우수상품전시회

2007 알마티 경기우수상품전시회, 상담회가 알마티 소재 Atakant에서 세이두마노프 알마티 부시장, 김일수 카자흐스탄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벤처협회 주관하는 2007 알마티 경기 우수상품전시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내 43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또한 경기벤처협회에서 사전 발굴한 바이어와 시간대별로 활발한 수출상담을 벌였다.

경기도는 최근 풍부한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BRIC에 이은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는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알마티에서의 전시회를 기획했다.

경기도 대표단장 정창성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자원과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연 10% 이상의 성장을 구가하는 무한한 잠재력의 나라로 우리나라 기업이 전략적으로 선점해야 할 시장”이라며 이번 전시회 참가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정창성 행정부지사는 경기도-알마티주간 우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난 11월13일 알마티주 정부를 방문하고 음베트브 셰릭 아비케노비치 알마티주지사에게 정 부지사는 풍부한 부존자원, 높은 성장 잠재력, 지정학적·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국제협력관계 구축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주)하츠 김용준 부장은 “아직 사회주의 체제의 잔재로 비즈니스 환경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절대적 경제규모

나 시장성 등은 자원 매력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카자흐스탄 시장의 특징이나 도내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경기도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알마티주 양 지역은 우호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우호협력 MOU 체결 일정과 교류협력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알마티주와의 우호협력관계 체결을 계기로 향후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글교육, 한국문화 회복 및 보급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벤처협회가 주관하는 2007 알마티 경기우수상품전시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내 43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또한 경기벤처협회에서 사전 발굴한 바이어와 시간대별로 활발한 수출상담을 벌였다.

# 가을이사철 불법중개행위 합동점검

## 경기도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595건 적발

경기도는 가을이사철을 맞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2만4천33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결과 123건을 적발했다.

단속결과 59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유형별로는 등록취소 16건, 업무정지 88건, 과태료부과 59건, 사법기관 고발조치25건, 시정경고 267건을 행정조치 했고 123건에 대하여는 조치중에 있다.

주요 위반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률 위반 행위였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8일부터 11월2일까지 가을 이사철을 틈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미교부, 보증보험증서사본 미교부,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부동산거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가동점검반을 가동해 대대적으로 지도·단속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속기간후에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경기도 2008년도 예산 12조 3천535억원 편성

## 2007당초예산 11조3천668억원 대비 9천866억원 증가

경기도는 총 12조3천535억원 규모의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올해 당초예산 11조3천668억원보다 9천866억원이 늘어난 12조3천535억원 규모의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세 수입을 올해 당초예산 5조7천953억원보다 3천847억원 늘어난 6조1천800억원으로 계상했다.

분야별로는 지방세 수입 6조1천800억원, 세외수입 5천774억원, 국고보조금 1조9천400억원, 균특보조금 4천41억원, 지방교부세 1천350억원, 국고기금 705억원, 지방채 발행 2천500억원 등 총 9조5천57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07년 당초예산 8조6천204억원 대비 10.9%가 늘어난 규모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비롯, 첨단 R&D산업의 지속 투자, 낙후지역개발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 교육여건 개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중소기업 지원, R&D·차세대 성장동력 기반강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천790억원을 배정했으며 특히, 시설투자보다는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에 기술개발 및 연구자금 330억원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광역도로망 구축사업 8천832억원, 이용자 중심

의 대중교통 환승화와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3천17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경기 시내 및 마을버스와 서울 버스 및 수도권 전철간 통합거리 비례제 시행경비와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경기 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 통합요금제 소요경비로 1천624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예술, 체육활성화, 경기문화의 연구개발, 문화관광산업 육성, 교육환경개선, 교육인프라 조성 등 21세기 문화경기 실현사업 1조8천510억원, 특히 문화재 복원사업을 위해 수원 화성 종루 복원사업 50억원, 만년제 복원정비사업 125억원 및 연천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비 69억원, 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비 지원 등에 18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민의 기초생활 보장, 다양한 복지사책, 건강수준 향상 등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구현사업 1조 328억원, 농어업 발전 기반구축, 앞서가는 농어촌 건설사업 등에 2천33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유기질 비료지원 82억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79억원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60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경분야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팔당호 수질개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재활용 활성화 등 물 맑고 푸른 경기도 건설사업 5천444억원,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사업비 202억원을 반영하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포토뉴스



## 2007경기국제관광박람회

일산 킨텍스에서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제 5회 2007경기국제관광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 및 김

종민 문광부를 비롯 내외 귀빈들이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제4회 토여테이블웨어 페스티벌

제4회 토여 테이블웨어 페스티벌 개막식이 14일 서울무역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김문수 경

기지사 도에인및도자산업 관계인들이 참석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 경기도-인도Creative사 투자협약 체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크리에이티브사의 비네 아가왈 사장과 MOU서명식을 갖고, 의료

용기기 및 생활용품 등 주형 제조공장 건설을 위한 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 이미숙의 전통춤 이야기 <2> <끝> 안성향당무(安城香堂舞)

## 서민의 애환과 삶을 표현한 춤과 화랑무로 구성

안성향당무(安城香堂舞)는 2000년8월21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춤이다.

안성 향당무는 서민적 정서와 나라의 안녕을 수건과 공, 깃발 등을 사용하여 표현한 궁중 지방의 전통춤이다.

향당이라 불리던 약가무교습소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유래는 고려 공민왕 때 흥건적의 난을 평정한 후 승리한 기념으로 극적 무 관기인 버들애기의 후예들이 버들애기의 뉘를 기리며 춤을 춘 것이라고 한다.

향당무는 서민의 애환과 삶을 표현한 춤과 화랑무로 구성 되어 있다. 춤은 사물, 취타, 가야금, 단소, 태평소 등의 반주에 맞추어 추는데, 그 가운데 수건을 가지고 추는 흥애수건춤은 빨래, 길쌈, 출산, 바느질 등 여인들의 힘겨운 가사 일을 수건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안성 향당무는 보존회를 통해 봉황금란무를 비롯하여 태극진세무, 두산무령무 등 여러 종목의 춤이 보급되고 있으며, 화랑

무를 추는 이석동 씨가 화랑무의 전통을 잇고 있다.

문의: 의정부시무용단 031-877-8891



이미숙 단장